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우리가 누리는 복을 러시아 형제들과 함께!

러시아 교회지도자들이 참석할 제 5차 김치세미나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김치(KIMCHI)본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세미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을 러시아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 온 교회는 기도로 힘을 모을 때이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al)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는 자국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현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족한 신학적 지식과 신앙경험을 보충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에 대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내에 선교 비전을 확장시키고 타국에 대한 최상의 전도방법을 모색케 하려는 김치세미나는 국제화의 물결이 국내외로 넘쳐 흐르고 있는 작금의 시대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선교전략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동구라과 7개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계속해 온 이 세미나는 올해도 5월 25에 시작하여 6월 3일까지 10일간 제 5차 김치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70년이 넘도록 막스주의의 종주국으로 우리를 두렵게 했던 러시아에 이제 막 문이 열린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33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운동,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운동, 신학교육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새벽기도운동을 배우며 자국복음화를 위한 적용점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신앙경험과 받은 은혜들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치 본부에서는 제 5차 김치세미나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운영위원들은 매주 화요일 새벽기도회 후에 모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헌금으로 충당하는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과 은사에 따른 봉사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모든 언어

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5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

운영위원 발표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장 / 이종윤 목사

위원장 / 오정수 장로 지도 / 임진태 목사

총무 / 임상현 집사

지도위원 / 장로 전원, 권사회장,남선교협의회장, 여전도협의회장

실업인선교회장

분과	분과장	지도	위원
기획	허희철	김재호	김용진 김영준 홍성주 박가원
진행	김세재	임진태 권상석	윤찬오 오치열 김성무 이관규 이호연 우지원 박정선 최재규 김용래 이양철 김인수 최인영 이영희 김상옥 한명순 이한순 이경혜 허 숙 장수분 이명숙 이기숙 한정자 양인수 김연옥
시설	허찬우	원필원	권영복 이인근 우정하 박동식
수송	이기룡	최병호	김현영 이승우 성준경 김일용 조정식 박민호 오형철 하영수
홍보	허규칠	장승희	김승기 서성호 정동호 허 숙 박은경
의료	정동호	김주아	박덕순 오은이 안영국
식사	최난수	유순화	권사회, 여전도회 임원
재정	박두호		송석인 김 훈 주경자

제 1차부터 5차까지의 김치세미나 참가국들

구분	실시일	영역권	참가국
1차	1990. 11. 2. ~ 11. 11.	동구권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7개국)
2차	1991. 5. 28 ~ 6. 6.	중국어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8개국)
3차	1992. 5. 26 ~ 6. 3.	힌두교권	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4개국)
4차	1993. 5. 25. ~ 6. 3.	아프리카	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디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카스칼, 말라위,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츠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21개국)
5차	1994. 5. 25. ~ 6. 3.	CIS	러시아

창세기강해



이 중 윤 (목사 · 당회장)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1 ~ 22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인가, 허구인가? 수백만이 넘는 동물들이 어떻게 종류대로 방주에 다 들어 갈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한 곳에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었을까? 긴 홍수 기간과 물이 다 빠지고 없어질 때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무엇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상식으로 추측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요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홍수의 범위 역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役事)는 인간의 상식과 추측을 뛰어 넘는 것임을 믿습니다.

1. 역사적 사실

방주의 제도에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 규빗’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8인치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자면 방주의 길이는 사백 오십 피트, 넓이는 칠십 오 피트, 높이는 사십 오 피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의 크기가 매우 큰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각 부류를 따라 700종류 이상이 되는 동물을 방주 속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팀 라하예(Tim Lahaye)와 존 모리스(Jonh Morris)가 쓴 ‘아라랏의 방주’라는 책에 의하면 인간이 알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일백 칠만 이천 삼백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수 한쌍씩 어떻게 방주 속에 넣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가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홍수사건 역시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많은 것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홍수가 끝난 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산은 터키와 알메니아 중간에 지금도 있습니다. B.C. 275년경 바벨론의 역사가인 베로수스는 배가 알메니아의 고르디안이라는 산에 정착을 했다고 기록했고 A.D. 180년에 안디옥의 데오빌리우스는 아라비아산에서 배의 유물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856년 알메니아 하지 이아람은 자기 아버지와 무신론자 세사람이 아라랏산을 등반해서 방주 조각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온 세계에 뉴스가 되었던 기

록도 남아 있습니다. 1876년 영국의 국회의원 제임스 브라이스도 약 13,000피트가 넘는 높이로 잘려진 목재가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은 여러 모양으로 입증이 되었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2. 마지막 심판의 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 1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13절에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5-13절에 의하면 이 홍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고 큰 궤입니다. 원어로 보면, 법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구속’이라는 말과 유사한 발음의 말로 ‘역청을 바른다’는 말은 ‘구속으로 덮는다’는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산다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과 방주는 곧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교리와 아울러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 언약의 중요

‘계약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모든 일은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 때문에 일이 진행됩니다.

노아는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 이백 오십 삼회, 신약에 이십 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언약의 종교, 혹은 계약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담과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지킬 것을 언약을 통해 제시하시되 그것을 파괴 할 경우에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

입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창조 언약이지 행위 언약은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신 계약이 시작의 계약이라면 노아에게 주신 계약은 보존의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언약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요 구원 받을 백성들에게 대한 약속이었으며, 모세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천국과 메시야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언약이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방주 사건은 언약의 중표입니다.

4.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언약

인간의 언약은 언제든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만 노아가 받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물이 만이 방주에 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을 무지개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에게 구원 받을 만한 공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언약은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계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영원히 감사할 일

생각없이 행하듯 앞세우는 사람은 경박하고 생각은 많으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답답하다. 생각이 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한 바를 과감히 실천하는 결단력을 갖춘 사람을 세상은 인물이라고 자랑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인물이 귀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아울러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온상십에 판 기룬 유다는 과감한 결단력은 있었지만 모르나 엄청난 오판으로 인해 천추에 찢히 못할 죄인이 되었다. 생각이 실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진리 안에서 호흡하고 사는 자는 생각도 행동도 자유로워지고 진실해진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를 삼일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은 우리와는 달랐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감없이 나타난 것을 영원히 감사하자.

지난 며칠간(1993년 5월 26일 ~ 6월 3일) 서울에서 「김치세미나」라는 이름의 국제 회의가 열렸다. 「김치」라고 하면 어떤 식품(김치?)의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김치(KIMCHI)'란 '국제 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이라는 기관의 영문 약자이다.

이번 이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힌두문화권에서 왔다. 인도의 저명한 기독교지도자 26명을 비롯,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등에서 모두 34명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의 창설자는 이종윤 목사이다. 따라서 이 세미나를 가능케 뒷바라지 하는 것도 서울장로교회이다. 잘 아는데로 서울교회는 설립되지 얼마 안되는 교회이다. 그러나 전 교회가 일치되어 이 행사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치루어 내고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손님들이 모두 흠족한 표정이었다. 인도에서 온 손님 중에는 감리교회의 저명한 감독 몇 분이 있었고 신학교 학장도 있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와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자도 있었다. 힌두문화권의 기독교 지도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오기는 한국교회 선교 이래 처음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인도의 저명한 신학자에게 "한국교회가 인도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철학은 인도의 것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내 친구 중 크리스찬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는 바울 신학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요한의 사랑을 통해 결국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이 인도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이 인도 선교의 가능성이라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서울장로교회와 김치세미나

김 원 식

(기독교아시아연구소 소장 · 한국기독교언론인 협회 회장)

.....

이 글은 「김원식 에세이집 -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필자가 1992년에 우리교회에서 개최한 제 3차 김치세미나를 참관하고 나서 그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제 5차 김치세미나의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미나의 목적을 되새겨 보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서울교회는 설립되지 얼마 안되는 교회이다.

그러나 전 교회가 일치되어 이 행사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치루어 내고 있었다. <살림>의 편에서 힘을 합치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김치세미나는 세계선교의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 크지만

민간외교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리랑카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로, 기독교는 0.7% 미만인 소수 종교이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백락준 박사가 주장하신대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협정이라도 체결해야 한다. 차체에 문화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충격의 극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김치세미나가 기여하는 바는 대단한 것이다. 유일하게 동구권의 불가리아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올 가을

에 문을 열려고 하는 신학교를 책임지기 위해서 영국 런던에서 공부 중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한국 교회의 기도 열기에 감명을 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동서양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의 비교가 용이한데 그의 견해로는 서쪽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며 김치세미나의

목적과 취지에 찬사를 보냈다.

일본 대표는 루터교 목회자였는데 일본 선교는 '가정교회'에 비중을 둔다고 했다. 민주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일본만큼 기독교의 성장세가 둔한 나라가 없고 보면 일본 선교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김치세미나는 세계선교의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 크지만 이를 지켜 본 한 정부관리의 이야기에서처럼 민간외교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큰 교회당과 막강한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장로교회의 성립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이 행사를 지켜 보았다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동안 이토록 실한 내면적 성장이 가능했을까고 놀랄 것이다.

기독교는 칼을 들고 상대를 소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종교가 아니고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종교이다. '살림'의 편에서 힘을 합치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3월 10일 경건의 일기 - 김치세미나에 봉사하게 된 감격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며,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며...

오늘 아침,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을 주신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 ‘그렇다면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볼까?’라는 순간적 생각과 함께 나라는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지난 날들의 영광스런 일들이 생각났다.

4년 전,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여권을 감사하며 주신 바 재능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다고 내 입으로 감히 아뢰었을 때, 세계복음화의 불씨가 되는 김치세미나의 한 모퉁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보이시고 그 시작부터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해마다 계속된 김치세미나에서 알지 못하

던 나라들의 목회자들과 만나며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함을 체험하고, 가보지 못한 나라의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일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곤 했다. 내 입으로 모든 나라들 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을 높이고 또 높일 때 주님도 나를 높이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내게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갖게 하셨다.

가까이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부터 평생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저쪽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 나라들과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국 땅에 달려와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그들의 부분집합이 되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꼭 잠겨곤 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 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사55:5)

몇년 전 만 해도 상상치 못했던 러시아 형제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다시금 설레이는 맘으로 준비하며 말씀을 따라 입을 벌려 본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다윗과 함께 느끼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준법투쟁?

법을 지키는 당연한 의무인데 준법을 투쟁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 모든 법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교통법규는 인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준법운동은 기본이다. 그런데 준법 투쟁이라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의무를 권리로 착각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요 상식에도 못 미치는 유희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 개혁이니 신사고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류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랴? 협상이 끝나면 준법투쟁은 탈법운동으로 되돌아가고 시민들은 또 아슬아슬한 곡예운동에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다. 모두가 제자리에 바로 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순례자**

■ 새가족 환영회 스케치 ■

‘새가족’에서 ‘한가족’으로

지난 10일(목) 오후 7시부터 새가족부실에서 올해 첫 새가족환영회를 했다. 새가족을 대표한 고윤화 권사의 영감어린 찬양의 순서가 있는 후 지금은 새가족이지만 향후 10년 즈음이면 ‘논현동 교회 시절’을 함께 회상할 한가족 되었음을 환영하는 이종윤 목사의 환영사와 교회소개가 있었다. 만찬 후, 새가족들은 간증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는 책임있는 서울교회의 신자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어 번역자를 찾습니다

제 5차 킴치세미나 본부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계속 오고 있는 편지를 해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해독이 가능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517-7651~5

고3을 위한 기도결연예배

고등부에서는 고3학생들을 1년 동안 기도로 후원하기 위한 결연식 예배를 오늘(13일) 11시 2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갖는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순례자’는 여러분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제보나 문의, 원고를 주실 분은 ‘순례자’ 편집실이나 편집부를 지도하시는 장용휘 목사님께 연락을 주십시오.
‘순례자’편집실 전화: 516-9640 · 팩스: 516-9641 장용휘 목사님(교회) 전화: 517-7651~5 팩스: 512-1225 호출기: 012-291-8958

교우 동정

오창해 성도(1교구 논현 3 다락방)는 지난 8일(화)에 애완전 미용용품 전문점인 「샤론 애견」을 개업하고 예배를 드렸다.
(샤론애견 / 중구 충무로 5가 62-1 ☎ 279-1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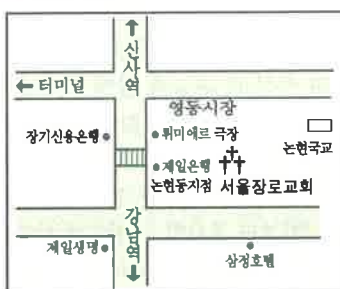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길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킴치세미나를 위해 온 교회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남은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